

6/14(화) 느헤미야 묵상 10

느헤미야 6:1-14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막바지에 달하게 되었을 때 벌어진 영적 공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적들의 대내외적인 공포와 모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았던 느헤미야를 이제 적들은 아예 내부의 적을 심어놓게 됩니다.

영적인 마지막 공격

본문 1절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른 것을 보여줍니다(1절,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 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특히 성문의 ‘문짝’은 건물 공사의 마지막에 시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2절,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들이 만남을 제안한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20마일(32키로) 정도 떨어진 곳으로 당시 사마리아와 아스돗 사이의 중립 지대였습니다. 원수들이 중립 지대에서 만나서 어떤 협상을 할 것처럼 대화를 제안했지만 그들의 본심은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런 제안이 거절되자 그들은 네 번씩이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4절,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느헤미야는 그 제안을 끝까지 거절하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한 사람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5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산발랏이 보낸 편지가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악한 의도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보통 지도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봉해서 보내는 것이 원칙인데 ‘봉하지 않은’ 편지는 전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느헤미야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그들이 퍼뜨리는 소문에 영향을 받도록 하기 위함으로 추정됩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는 유다 지방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는 거짓 편지였습니다(6-7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느헤미야는 그들의 사악한 노림 수에 넘어지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 주변 사람들이 소문에 동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9절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스마야의 거짓 예언

이것도 저것도 통하지 않자 산발랏과 원수들은 결국 유다의 스마야라는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고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10절, “이 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라라 하기로”). 본문 10절에서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두문분출한 사실을 알았고 또 그가 느헤미야에게 가서 거짓 예언을 했던 것을 볼 때 그는 느헤미야와 단순히 아는 정도가 사이가 아니라 제사장들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던 인물로 추정됩니다. 그런 그가 뇌물을 받고 산발랏과 원수들의 꾀임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었습시다. 하지만 그 일에 가담한 사람은 스마야 한 사람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제사장들이 이 일에 가담하고 느헤미야를 전방위적으로 두렵게 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14절, “내 하나님이며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하면서 온갖 영적인 공격과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원수들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애썼지만 느헤미야가 이들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이전에 페르시아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선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주변 사람들이 거짓된 소문과 뇌물로 원수들에게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언제나 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삶의 여러가지 어려움과 영적 공격의 상황과 환경을 직면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약 5:17-18,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영적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먼저 풀기 보다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또 모든 문제를 주 안에서 선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한국을 위한 기도:** 새정부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결같은 겸손한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잘 섬기게 하소서.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교육 부서, 오늘은 CM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 **협력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페루아마존 홍성진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